무주군, 고향사랑기부 손길 줄이어 무주사랑 실천

전주고려병원 박근호 원장이 17일 무주군을 방문, 고향사랑기부 최고 금액인 5백만 원을 기탁했다.

박근호 원장은 "무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기로 약속했던 것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도 무주에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라며 "고향사랑 기부금이 토대가 돼서 무주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무주군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황인홍 무주군수는 "앞선 통합 · 전문 진료 협약만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고 여겼는데 고향사랑기부로 또 한 번의 감동을 안겨줘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서 군민이 만족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대학일자리플러스, '청년 고용정책홍보 Day'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7일 전주고용복지+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청년 고용정책 홍보 Day' 커피 트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알아가고 커피 한잔하자~'라는 주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잡케어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홍보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상담, 취업 컨설팅, 기업탐방 정보 등 재학생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들이 참석해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비용, 일경험프로그램 등의 정보도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상전면,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흘려

진안군 상전면(면장 이옥순)은 17일 바쁜 영농철을 맞아 고령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와 고추 지주목 세우기, 사과 적과 등의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상전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행정지원과 직원 20여명이 2팀으로 나눠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고추 지주목 세우기는 고추 지지대를 땅에 깊이 박아야 하는 만큼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 사과 적과 또한 일일이 손으로 사과를 솎아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기에 일손돕기가 꼭 필요한데 직원들의 동참이 농가의 일손을 덜어줬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노암동, '제4회 사랑의 소원등 달기' 행사

남원시 노암동(동장 임점숙)은 제93회 춘향제를 맞아 지역 명소인 승월폭포 일원에서 '제4회 사랑의 소원등 달기' 행사를 추진한다.

노암동 청년발전회가 주최하고, 행정복지센터 주관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이전에는 금암봉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나, 주요 행사장과의 접근성을 높여 춘향제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노암동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된다.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5일간) 열리는 행사는 소원지 쓰기, 소원등 달기, 포토존을 운영하며, 소원등 달기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전한 노후 · 촘촘한 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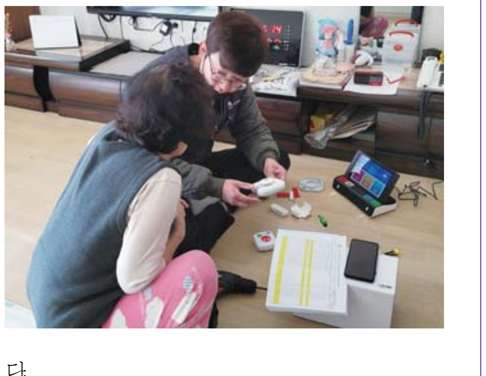
남원시, 응급상황 안전 사각지대 해소… 차세대 장비 400대 추가 설치

남원시는 응급상황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4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서비스 장비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나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와 연계 긴급출동 등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남원시는 현재 1,200가구에 차세대 장비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400대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총 1,600가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설치 대상자는 만 65세 노인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가구와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 독거 또는 취약 가구로, 디지털돌봄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 이상 발견 시 응급관리요원이 직접 방문해 장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설치 장비는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119 상황실과 응급관리요원에게 응급상황을 알려 주는 차세대 장비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비대면 돌봄서비스가 가능하다.



남원시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은 "차세대 장비 설치로 댁내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예방적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아태마스터스대회 경기 심판 · 운영요원 '현장 해결 주역'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폐막식이 다가오면서 25개 종목의 경기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가운데 그간 대회성공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구슬땀을 흘린 경기심판과 운영요원이 주목된다.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생활체육 국제대회인만큼, 개최 전부터 양궁, 육상, 배드민턴 등 모든 25개 종목의 경기심판과 운영요원의 모집 관심이 많았다.

조직위는 이달 초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경기를 주관하는 각 25개 종목단체의 도움을 받아 국내 숙련된 심판과 운영요원을 각각 1,000여명씩 총 2,000여명의 경기 인력을 고심하여 모집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심판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종목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지만, 각기 생업이 따로 있는 일반인이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국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열망으로, 약 일주일간의 긴 시간을 할애하며 대회 심판과 운영요원으로 참여했다.

경기심판과 운영요원들은 대회 개최 직전, 미리 경기장소에 모여 종목별 강습회에 참석해 경기시설과 환경을 파악하고 머리를 맞대며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경기 진행 계획을 세웠다.

대회가 개최되며 25개 종목 1만여명의 참가자들이 각 경기장으로 몰려와 부산한 가운데 심판과 운영요원들이 각 역할을 무리없이 잘 수행해 경기지연과 공백없이 능숙하게 경기진행을 이끌었다. /김재훈 기자

전북불교대학, 성금 200만원 '엄마의 밥상' 기탁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아침밥을 굶는 전주시 아이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했다. 전북불교대학은 17일 전주시를 찾아 '밥 굶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원광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신의경 학생이 받은 장학금을 전북불교대학을 통해 '엄마의 밥상' 지원을 위해 기탁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신의경 학생의 언니인 신의진 학생도 지난 2021년 자신이 받은 장학금195만 원을 전주불교연합회를 통해 '엄마의 밥상'에 후원하는 등 자매가 연이어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백준기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은 "어렸을 때 전북불교대학 어린이 법회에 나오던 꼬마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기쁘다"면서 "전북불교대학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더 챙기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금을 기부해 준 전북불교대학과 신의경 학생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상반기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학교운영위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16일 '2023년 상반기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무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했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를 마무리하면서 창의·예술 미래공간 조성, 교육지원청 내 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안내 및 단위학교의 애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호원대 인권센터,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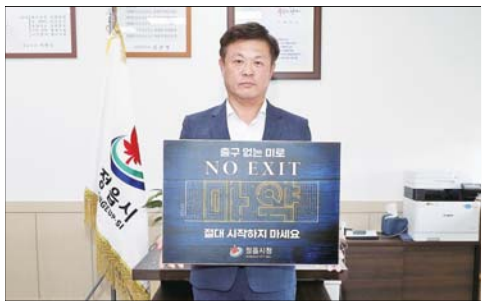
호원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 축제를 앞두고 지난 16일 군산경찰서와 협조해 대학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불법 촬영 카메라 이용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군산경찰서 관계자 2명, 인권센터 3명, 총학생회 3명, 관재시설팀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을 조직했다.

점검단은 전문장비인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도서관, 체육관, 문화예술관, 학생회관 주요 시설물과 화장실 등을 점검한 후 불법 촬영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문구 스티커도 부착했다.

홍지연 센터장(간호학과 교수)은 "정기적인 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습과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 동참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6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정읍경찰서 황동석 서장의 지명을 받은 이 시장은 이날 '마약,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학수 시장은 "마약은 가족과 사회를 파괴하는 근본 악으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개인의 인생뿐 아닌 사회에도 큰 불행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과 홍보를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과 아산병원장 임경수 원장을 지명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출구 없음(NO EXIT) 캠페인 이미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마약범죄 예방캠페인 동참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이 지난 16일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NO EIXT'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연말까지 경찰청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김광수 의장은 "이제는 일상으로 파고드는 마약은 모두가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군민들과 함께 마약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약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의장은 권익현 부안군수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삼형 NH농협은행 부안군 지부장을 지목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산외면, 찾아가는 문화장터 열어

정읍시 산외면은 지난 16일 노인·장애인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면사무소 공영주차장에서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열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전시, 영화,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지만 농촌지역은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또 농촌 특성상 이동수단이 없어 문화시설을 방문하기 어렵고,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찾아가는 문화장터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접시·수저세트, 밥상, 베개, 가방, 모자, 스카프, 지팡이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용품과 공예품, 운동용품 등 문화누리카드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판매했다.

문화장터를 찾은 산외면 주민들은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쓸 수 없었던 문화누리카드를 가까운 곳에서 문화용품을 구매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병택 산외면장은 "비록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기지는 못하지만 이번 문화장터 개최처럼 산외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처를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연간 1인당 11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정읍=김대환 기자